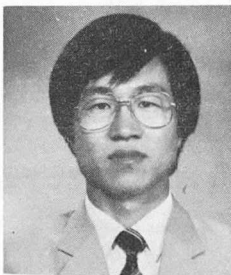


사료원료 수급정책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비싼 국내옥수수를 수입 옥수수 대신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국산곡류대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신 병 훈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대리)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산업은 60년대 이후로 오랜 세월동안 성장·발전해 온 이래로 최근 수입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축산기반이 점차 붕괴되어 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86년 7월에 양계용·애완용동물 배합사료가 수입자유화 되었고, '89년 7월에 양돈용 및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가 자유화 되었으며, '9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배합사료 수입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배합사료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사료 자원의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국산원료 사용에 따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배합사료업계는 물론, 연관산업의 생산 위축과 고용감소 등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산옥수수와 대두박 등 사료원료 수급정책 개선을 통하여 배합사료의 원가절감으로 외화절감 및 농가소득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불안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인 개방화 추세와 관련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을 강요함에 따라 국내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축산물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사료원료 수급정책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별기획 / 축산물 수입개방에 이렇게 대처하자

〈표1〉 연도별 국산옥수수 배정 물량

(단위: 톤)

구분 연도	배정량		용도						별	
			사		료		용		공업용	
			사	협	축	협	계	옥	가	협
80년도	100	62,645	72	45,047	10	6,322	82	51,369	18	11,276
81	100	47,751	70	33,292	14	6,819	84	40,111	16	7,640
82	100	58,064	66	38,148	17	10,045	83	48,193	17	9,871
83	100	51,611	65	33,819	19	9,536	84	43,355	16	8,256
84	100	57,966	61	35,198	15	8,856	76	44,054	24	13,912
85	100	68,214	66	44,955	17	11,735	83	56,690	17	11,524
86	100	51,019	57	29,180	17	8,472	74	37,652	26	13,367
87	100	65,000	57	37,050	18	11,700	75	48,750	25	16,250
88	100	62,360	57	35,545	18	11,225	75	46,770	25	15,590

〈표2〉 옥수수 수급 상황

(단위: 천톤)

구분	수요	공급		자급도
		국내산	수입	
80	2,388	154	2,234	6.4
82	2,931	117	2,814	4.0
84	3,356	133	3,223	4.0
86	3,810	113	3,697	3.0
88	5,367	106	5,261	2.0

정부에서는 국산옥수수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국산 옥수수를 사료원료 용과 식품가공용으로 구분하여 매년 생산량을 추정, 각 실수요자 단체 및 농협에 통보하여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싼 국내옥수수를 수입 옥수수 대신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국산곡류 대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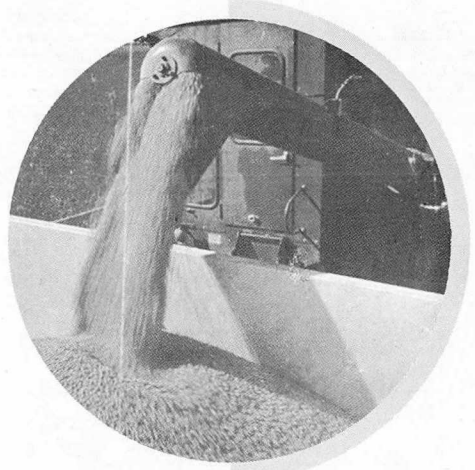
'87년의 경우 약 5만톤의 국산옥수수 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약 140억원에 이르렀고, '88년에도 kg당 무려 330원 이상 비싼 단가로 약 5만톤의 국산옥수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약 152억원의 추가부담액을 축산농가가 부담하였으며, '89년산의 배정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더욱 상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증산시책 및 수매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및 자급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산 및 수매정책과 작부체계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국내옥수수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높은 수매가격과 제반 반대비용은 결국 농가에 다시 환원되어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인수가격은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가격인상 요인은 양축농가에 전가되어 축산물 생산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나, 양축농가는 국내축산물 수급사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생산비 이하로 흡수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는 옥수수 경작농민을 위해 축산농민이 부담을 감수하는 농민간의 부담전가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계층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양조용(주정원료)이나 식품가공용으로 전환하여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전농민을 위하는 정책적인 배려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배합사료도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비싼 원료의 사용은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킴으로 국산옥수수 사료용 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90년 1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 되는 76개 농수산물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옥수수와 양조용 포도 등 2개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과 '91년부터 개방되는 바나나·파인애플 등에 대한 작목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총 8백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옥수수에 대한 차액보상지원을 연도별로 보면, '90년도에 180억원 '91년에 190억원 '92-'93년간에 410억원 등 총 78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옥수수가루·대두유·대두박 등의 수입개방으로 이들 품목의 재배농가도 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완대책비는 매우 미미한 상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89년 4월 8일자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배합사료도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비싼 원료의 사용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 국산옥수수의 사료용 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용 대두박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원료로 배합사료 원가비중이 약 18%(연간 수량 약 110만톤)로 배합사료 원료중 수량이나 금액면에서 옥수수 등 곡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사료용 대두박의 유통경로를 보면, 수

입대두를 가공하여 식용유를 착유하고 남은 부산물인 국내가공 대두박(70%)과 수입대두박(30%)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국내대두박의 경우는 제일제당, 동방유량, 삼양유지의 3개 대기업의 과점상태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대두박의 수입쿼타량은 연간 총 수요량중 식용유 생산에 소요되는 국내 대두가공회사의 대두 쿼타량을 대두박으로 환산(수율 79%)한후, 부족되는 양을 수입대두박 쿼타량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료용 대두박 수급제도의 문제점은 사료용 대두박의 수급주체가 소비자(사료업체, 양축가)가 아닌 수입대두 가공3개사에 의해 과점공급되고 있어 가격담합 소지로 인한 가격이나 공급상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국내 가공대두박의 원자재인 대두는 거의 10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입대두박은 현행 사료수급계획에 의거 매년 국내대두 가공3개사에 대한 대두수입 쿼타와 함께 책정되어 수입대두박 쿼타량이 과소 책정되고 있으므로 수급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국내가공대두박 가격이 수입대두박 가격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국제대두가격이 하락함

특별기획 / 축산물 수입개방에 이렇게 대처하자



〈표3〉 국산 대두박 및 수입대두·대두박 가격 동향

구 분	88. 12	89. 12	변 동
국 산 대 두 박 (원/kg)	260	260	변동 없음
수 입 대 두 (US\$/톤)	334	263	△21%
수 입 대 두 박 (US\$/톤)	326	256	△21%

에도 불구하고 국내대두박은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격이 비싼 국산대두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절단체별 수입대두박 배정 비율이 축종별 소요량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 기준으로 배정함에 따라 대두박 소요량이 높은 양계·양돈사료를 다량 생산하고 있는 일반 사료공장의 수입대두박 배정이 상대적으로 과소배정됨으로 인하여 배합사료 원가관리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은 급변하는 국제원료 사료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원가절감으로 외화절감 및 농가소득을 위해 수입제한 품

목으로 묶여있는 수입대두박의 쿼타제 폐지 또는 수입자유화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 조절단체별 수입대두박 배정은 단체별 식물성박류의 사용실적기준에 따라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료원료 수급정책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양축농민에 대한 활력소가 될 것이며, 수입개방 정책에서 소외된 양축농민에게 보다 밝은 비전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어 축산물을 민족 생존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축산업은 축산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축산업의 역할이 국민 모두에게 재인식되고, 축산정책을 개혁해서 국내축산업을 지켜가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히 형성되지 않는 한 한국축산업은 시장개방 물결속에서 서서히 해체해 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